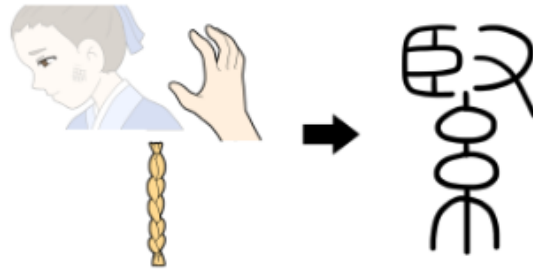


3(2)  
-  
71

회의문자①



緊

緊자는 '요긴하다'나 '팽팽하다', '급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緊자는 𢶏(어질 현)자와 系(가는 실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𢶏자는 '어질다'나 '굳다'라는 뜻이 있다. 緊자는 이렇게 '굳다'라는 뜻을 가진 𢶏자에 系자를 결합한 것으로 '줄이 굳다.', 즉 '줄이 팽팽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줄이 팽팽한 모습은 매우 급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緊자는 '팽팽하다'나 '급박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긴할 긴

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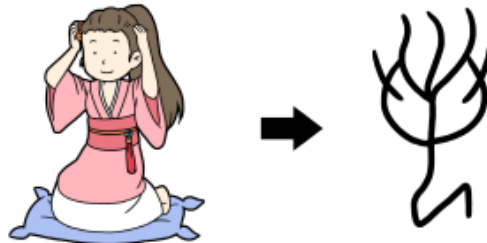
소전

緊

해서

3(2)  
-  
72

회의문자①



諾

諾자는 '승낙하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諾자는 言(말씀 언)자와 若(갈을 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若자는 양손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 여자를 그린 것으로 '갈다'나 '만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若자가 '온순하다'나 '순종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니까 若자는 순종적인 여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若자가 '갈다'나 '만약'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言자를 더한 諾자가 '허락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허락할  
낙

𠄎

갑골문

𠄎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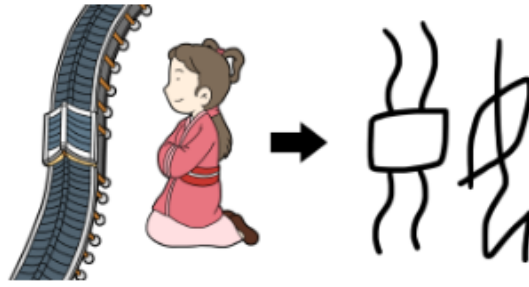
諾

소전

諾

해서

회의문자①



娘

계집 낭

娘자는 '아가씨'나 '여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娘자는 女(여자 여)자와 良(좋을 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良자는 대궐에 있는 긴 복도인 회랑(回廊)을 그린 것으로 '좋다'나 '어질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어질다'라는 뜻을 가진 良자에 女자가 결합한 娘자는 '좋고 어진 여자'라는 뜻이다. 참고로 娘자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뜻했다. 사극에서 젊은 여자를 보고 낭자(娘子)라고 부르는 것도 예전에는 娘자가 처녀나 젊은 여자를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㚕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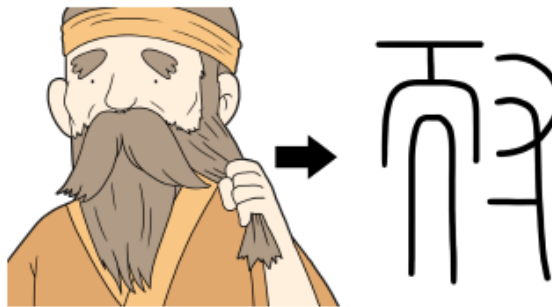
孌

소전

娘

해서

회의문자①



耐

견딜 내:

耐자는 '견디다'나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耐자는 而(말 이을 이)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而자는 사람의 턱수염을 그린 것이다. 그렇다면 턱수염과 손을 함께 그린 耐자는 왜 '견디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사실 耐자는 고대에 있었던 형벌 중 하나를 표현한 것이다. 이 형벌은 턱수염을 뽑아 고통을 주는 비교적 가벼운 벌이었다. 그러니까 耐자는 아프지만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견디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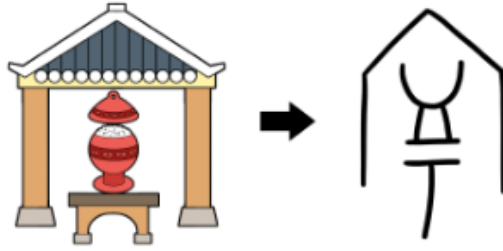
소전

耐

해서

3(2)  
-  
75

회의문자①



寧

편안 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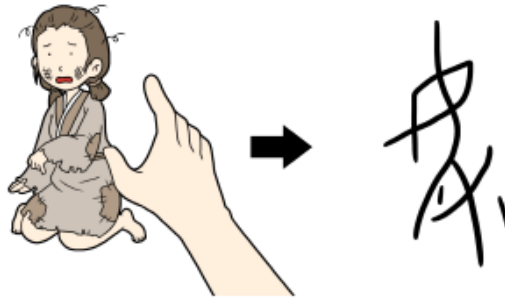
寧자는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寧자는 宀(집 면)자와 心(마음 심)자, 皿(그릇 명)자,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丁자는 '탁자'를 표현하기 위한 모양자이다.

寧자의 갑골문을 보면 탁자 위에 그릇이 놓여 있는 집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心자가 더해졌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의 寧자는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76

회의문자①



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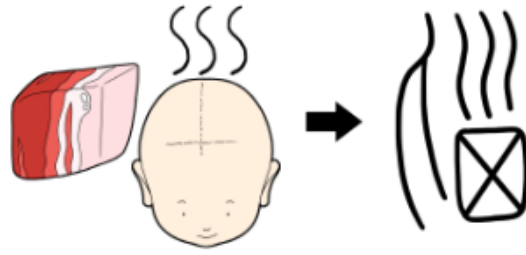
종 노

奴자는 '종'이나 '노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奴자는 女(여자 여)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又자는 '또'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사람의 손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손을 그린 又자에 女자가 결합한 奴자는 여자 노비를 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奴자는 '여자 노비'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노비'를 뜻하거나 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77

회의문자 ①



腦

골/뇌수  
뇌

腦자는 '골'이나 '뇌', '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腦자는 月(육달 월)자와 정수리를 본뜬 囟 모습을 결합한 것이다. 腦자의 우측에 있는 것은 囟 사람의 머리에서 올라가는 기(氣)나 숨구멍을 표현한 것이다. 腦자는 이렇게 사람의 정수리를 그린 것과 月자를 결합해 사람의 '뇌'를 표현한 글자이다. 사실 소전에서는 匕(비수 비)자가 들어간 𩇛(골 뇌)자가 쓰였지만, 해서에서는 腦자로 바뀌어 이것이 신체와 관련된 글자임을 뜻하게 되었다.

𩇛

소전

腦

해서

3(2)  
-  
78

회의문자 ①



泥

진흙 니

泥자는 '진흙'이나 '수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泥자는 水(물 수)자와 尼(여승 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尼자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진흙은 '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등을 맞대고 붙어있는 모습을 그린 尼자와 水자가 결합한 泥자는 물과 흙이 서로 뒤섞여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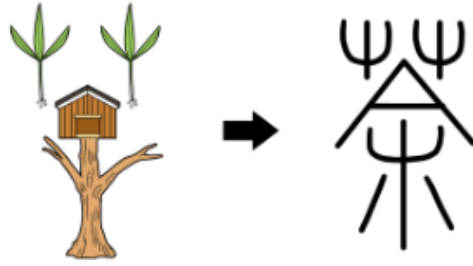
소전

泥

해서

3(2)  
-  
79

회의문자①



茶

차 다 |  
차 차

茶자는 '차'나 '차나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茶자는 艸(풀 초)자와 余(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중국은 차의 나라이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737년 중국의 고대 황제인 신농씨가 차를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한다. 차는 처음에는 약으로 마셨지만, 지금은 음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茶자에 쓰인 艸자는 차잎을 뜻한다. 余자는 작은 집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茶자는 소박한 집에서 차를 즐긴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참고로 茶자를 우리말로 '다'라고도 읽는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다방'이라는 곳은 사실 '차방'을 우리말로 읽은 것이었다.

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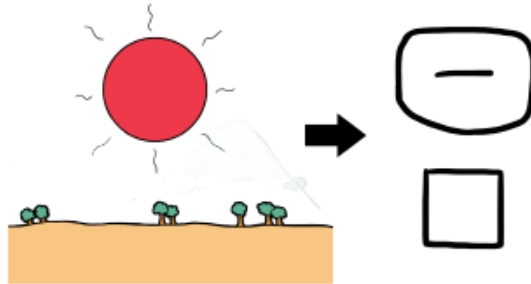
소전

茶

해서

3(2)  
-  
80

회의문자①



旦

아침 단

旦자는 '아침'이나 '환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旦자는 日(해 일)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旦자를 보면 日자 아래로 네모난 모양이 𠂇 그려져 있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이것은 지표면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우리말에서 旦자는 쓰임이 많지는 않지만, 중국에서는 양력 설을 원단(元旦)이라고 한다.

旦

갑골문

旦

금문

旦

소전

旦

해서